

정유, 휘발유 미국수출 급증

3-4월, S-Oil 등이 3만톤 수출 ... 1Q 수출량 470만배럴

미국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한국의 휘발유 미국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런던의 해운조사기업인 Clarkson에 따르면, 2004년 3월과 4월 미국의 정유기업들은 유조선 6척을 전세 내 휘발유 3만톤을 한국의 S-Oil 등으로부터 수입했다. 2003년 3-4월에는 미국 정유기업들이 한국에서 휘발유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4월 미국 서해안지역의 무연휘발유는 배럴당 17달러 정도로 한국보다 비쌌기 때문에 한국 정유기업들은 미국수출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S-Oil 관계자는 “미국과 아시아 간의 휘발유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마진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한국의 1/4분기 휘발유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470만배럴에 달했다.

<화학저널 2004/05/06>